

대구 · 경북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찾기!!!

(○○○○중학교)

1. 참가 학생

가. 동아리명 : 안빈낙도

나. 동아리 소개 : 안빈낙도는 학교의 방송반을 기반으로 하여 만든 동아리로서,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동아리입니다. 그 동아리의 1, 2, 3학년을 소집하여 대구 경북 다시 보기 활동에 참여합니다. 동아리의 총원은 3학년 5명, 2학년 6명, 1학년 6명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필요성 및 목적

「내 고장 대구 · 경북 다시 보기」 자료를 활용하여 대구 · 경북의 역사와 문화, 명소에 관해 탐구하고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작품이며, 특히 본 동아리에서는 시장과 상인들의 삶과 소박한 아름다움에 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름답게 발달해가는 도시의 모습과 시장의 번영과 동시에 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본의 흐름과 이를 통한 예술가들의 이탈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도 조명할 필요가 있음.

3. 동아리 활동 설계 및 운영

구분		활동 내용	평가	연계 교과
차시	단계			
1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구 소개 영상의 필요성 이해- 소박한 아름다움 이해하기- 대구 소개의 필요성 알기		
2	장소 물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구 경북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 물색		
3	공간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단순한 장소가 아닌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구상하기		
4	콘티 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물색한 장소를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지 콘티 짜기		
5	영상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제에 맞게 영상을 촬영하기		
6	영상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의미와 흐름과 규격에 맞게 영상을 편집하기		
7		<중략>	<중략>	

4. 동아리 활동자료

가. 골머리를 앓으며 회의를 하는 학생들

-당시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너무 힘들까봐 걱정하고, 또한 자신들이 잘 해낼 수 있을지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학년별로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3학년 학생들끼리 모여서 정리하고 있었다.



나. 극적인 타격으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로 한 학생들

- 하지만 걱정하던 시간이 지나자 자신들이 UCC를 찍어서 대구의 곳곳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한다. 담당 교사인 나는 못 해도 상관없으니 도전해보는 것에 의미가 있고 또 만일 실패해도 좋은 추억이 생길 것이라면서 권하였다.



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까지는 결정되었는데 세부적인 장소를 물색해야 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처음의 마음과 열정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닐까 싶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생겼지 않은가? 심지어 몇몇 부원들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왔다. 이 프로그램 막상 하려니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만두면 안 되냐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 이것을 애초에 왜 권하였는지 그 뿌리까지 돌아가는 질문도 던져왔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듯싶더니 다시 창궐하고 또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시 창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외 촬영 계획이 몇 번 무산되고 연기되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숙련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물며 아직 중학생인 아이들야 더 말할 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도 이해는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미 작심한 일을 이렇게 좌초시키는 것도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이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고 싶었다. 그래서 교육지책을 생각해 낸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구 경북의 거창한 아름다움을 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본디 목적 자체가 소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므로 우리 지역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 방식은 아이들의 마음에 작용하여 작은 효과를 냈다. 다수의 아이가 작은 공간들에 대한 것이라면 가능하다는 여론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결국 모두가 다시 힘을 내게 되었다. 이 바람을 놓친다면 안빈낙도팀의 프로젝트는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큰 밑바탕을 그리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송현여중 근처에 있는 송현시장을 우리의 공간으로 정하는 것이었다. 송현시장은 가깝고 역사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곳의 상인들을 인터뷰하고 그 거리를 영상으로 남기는 것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은 이 거리와 주변 주택가가 오래된 건물들과 거리지만 언젠가 개발된다면 주민들로서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이 송현시장이라는 존재에게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남겨두자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방송실의 책장 한 쪽을 차지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과거 학생들의 기록들을 보면서 나온 것이었다. 2021년을 사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일지들과 방송기록들은 낯설면서도 익숙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기록물들의 노래와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글을 쓰는 형태와 방송하는 형태는 시간을 초월하여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송현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모여 다니는 것은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바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학생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고, 그로 인해 더더욱 인원 제한에 걸리는 상황이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생활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17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단체로 외부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위협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서는 개별적으로 시장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맡을 점포를 정하자고 했다. 점포를 정하면 각자가 날짜를 다르게 하여 흩어져서 영상을 촬영하자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것도 쉽지 않은 시국이 2021년 시국이었다. 그래서 모두 어려워하다가

대구의 분위기와 조치들이 조금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행동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계획이 대구의 김광석 거리, 대구 시내 동성로, 서문시장을 공간으로 선정해서 UCC를 찍는 것이었다. UCC를 찍는 것은 전체 인원이 같이 또 따로 전술로 진행하고, 동영상은 수합하여 편집하는 것은 엔지니어들이 하고, 대본을 쓰는 것은 작가들이 모여서 하고, 나레이션은 아나운서부에서 맡기로 하였다.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먼저 김광석 거리의 활동부터 살펴보겠다.

라. 김광석 거리로 나가서 촬영 중인 학생

- 학생들이 처음에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계획을 짜다가 어느새 학생들끼리 따로 모여서 여러 번 회의하더니 최종적으로 담당 교사인 나에게로 와서 변경하고 싶다는 주장을 내비치었고, 이에 따라 나는 그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한 부분도 역시 학생들의 뜻에 맞춰서 수정했다. 학생들이 작업한 영상과 사진 중에서 이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느낌이라서 좋아하는 사진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벽화의 아름다움에 흠뻑 반해서 아름다운 사진들을 남겼고, 달고나 체험, 운세 체험 등을 하면서 김광석 거리를 관통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정취에 대해서도 느껴보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거리라는 점을 알았는데, 그것은 방문한 사람들의 연령대와 양태가 다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쉽게도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에 대해서는 깊게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쁜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찌하면 아직은 14살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있으므로 동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벽화들을 오롯이 즐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젠트리피케이션도 사회 갈등론도 모두 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고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나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직 어린 이 짧은 순간은 만끽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다.



마. 대구 시내로 가서 촬영을 한 학생들

- 옛날 시골에서 읍내 시장을 가는 것처럼 대구에서 가장 변화한 곳으로 동성로 시내가 있다. 그래서 상인들의 회로애락이 숨어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역시 찬란한 불빛과 왁자지껄한 소리에 묻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울까 봐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아마 ‘아... 상인들도 진짜 고생하네요.’ 라고 대답해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생 때는 교우관계, 시험, 부모님 등이 주된 어려움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촬영을 한 아이들이 시내에서 놀이기구나 VR도 체험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우리 프로그램의 주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놀이기구에 탄 학생의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학생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늘 마음이 편치 않고 때로는 미안하다.



바. 서문시장 야시장에서 기념촬영을 한 학생들

- 서문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어서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던 공간이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한창 배고플 나이이기 때문에 야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맛보고 즐기면서 영상과 사진을 남겼다. 그래서 풍부한 영상들이 나왔고 편집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다. 하지만 다 같이 즐거워하며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사. 두류공원에서 대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는 학생들

- 낙엽이 떨어진 두류공원은 아름다운 곳이고 가을 햇살도 아름답게 내려서 아이들이 좋아했다. 하지만 칼바람이 불어서 추위에 고통받다가 다시 두류공원을 산책하면서 대구에 내린 가을의 정취를 감상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대구에 살고 있어서 잘 모르는 듯하지만 어릴 때 타지에서 살다가 대구로 온 나에게는 아름답고 우아한 곳투성이이다. 아이들도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새삼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 2분짜리로 축약하는 영상편집을 마치고 나레이션을 삽입하는 교사와 아나운서

- 노력한 시간에 비해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분량이 짧아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최후까지 마무리해서 영상을 전송하고 나니 뿌듯했다. 특히 방송반 특성상 늘 긴장하며 활동하는 아이들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힐링도 되고 서로 웃으며 어울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러웠다.



5. 동아리 활동 결과물

-UCC 제출

-우수운영사례 제출